지부소개

울산지부 소개

이 규 철*
(*울산지부장)

1. 울산지역의 특성

울산은 한국 최대의 공업단지가 들어 서 있는 공업도시이다. 울산지역에는 조선공단, 자동차공단, 비철금속공단, 전기 전자공단 및 석유화학공단 등이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공단들 내에는 한국 최대규모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삼미특수강, 풍산금속, 삼성전관, 현대중전기, 유공, 쌍용정유 등 수많은 거대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한국공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 및 기타 중소기업들이 주변에 산재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중전기 사업체인 현대중전기는 지난해 정몽구 회장, 이수성 총리 외에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전기 공장 준공식을 가졌으며 한국 전기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계장 분야의 선두주자인 삼창기업 역시 울산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은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은 현대가 재단인 울산대학교가 유일하게 있어서 백만이라는 인구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은 공업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많은 교수들이 순수학문 분야보다 주로 산학협력 과제에 관련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산합협동이 활발한 대학 중의 하나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 울산은 또한 지난 7월 광역시로 승격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2. 지부 약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대한전기학회 울산지부도 역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산업체를 중심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울산지부는 1968년 8월 3일 김규환 지부장 등 5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어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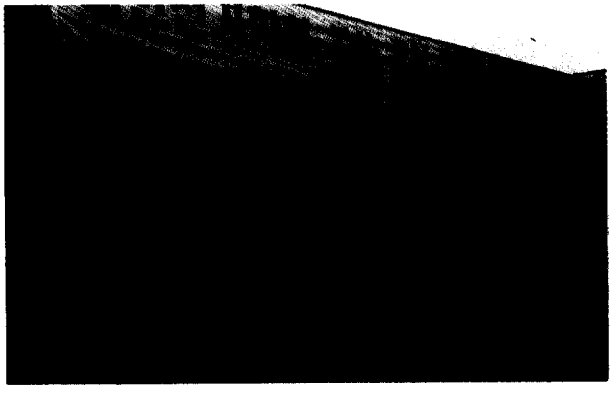

그림 1. 1997년도 부산 · 경남 · 울산지부 합동 학술발표회 (울산대학교 문수관)

회원수가 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지부로 발전하였다.

초대 김규환 지부장으로부터 박희정, 김상연, 김기수, 김상면, 김 훈, 김건영, 곽태엽, 박원심, 기우봉, 김방광 지부장을 거쳐 현재 이규철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지부장의 소속을 보면 타 지부와 달리 대부분이 학계가 아닌 산업체 인사들이다. 이것은 울산지부가 울산대학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체의 막강한 후원으로 성장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중전기는 1981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매년 수차례씩 이사회를 후원하여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환, 사업상의 협력 및 친목도모에 기여하는 등 울산지부의 기간 회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3. 지부현황

울산지부는 해마다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매회 5~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논문 내용은 학술논문과 산업체 현장에서의 기술개발 보고가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어 공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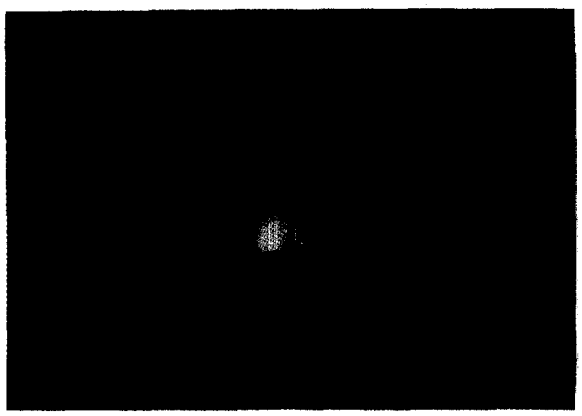

그림 2. 1983년도 울산지부 정기총회
(지철근 학회장을 모시고)

그림 3. 1997년도 학술논문 발표회

있다. 지부활동도 또한 산업지역이라는 특성상 국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금년에는 비교적 지부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지난 11월 15일 현대중전기와 삼창기업 등의 후원하에 대한전기학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및 울산지부의 합동 학술회의가 울산대학교 문수관에서 개최되었다. 약1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방광 울산지부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부산지부장, 경남지부장의 축사가 있었다. 논문은 부산대학 박정후 교수의 "AC PDP에서의 방전 cell구조와 방전특성의 상관관계" 등 31편이 발표되었으며 제어, 로보틱스, 자동화 분과, 제어계측 컴퓨터 분과, 전력전자 분과, 전기전자재료 분과, 고전압 분과, 전력계통 분과 등 여섯개의 분과로 나뉘어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논문 발표회 후 울산대학교 연구동 휴게실에서 만찬이 있었으며 처음으로 가진 3개 지부 합동 행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세 지부가 이 행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울산지부에서는 신임 지부장으로 울산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이규철 교수를 선출하였다.

울산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박원심 (고문, 울산대 대학원장)
곽태엽 (고문, 현대정유 부사장)
김방광 (고문, 현대중전기 공장장)
이규철 (지부장, 울산대 전기공학과 교수)
노영식 (총무이사, 울산대 전기공학과 교수)
안종구 (이사, 울산대 전자공학과 교수)
홍용표 (이사, 삼창기업 부사장)
정병태 (이사, 삼한계전 전무)
김기문 (이사, 삼한계전 사장)
이우진 (이사, 풍산 엔지니어링 사장)
최병남 (이사, 화인 엔지니어링 사장)
강원구 (이사, 한전 울산지점 부장)
강길건 (이사, 현대중전기 상무)
김광훈 (이사, 현대중전기 상무)
김종옥 (이사, 현대중전기 상무)

이규철(李圭喆)

1947년생. 1973년 연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1년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1978년 울산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1983~1984년 美버지니아 주립대 교환교수. 1994~1995년 美펜실바니아 주립대 객원연구원. 1997년(현재) 울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대한전기학회 울산 지부장.